

일본산 향나무 국가 사적 지석묘 위협

용담2동 지석묘 향나무에 덮인데다 가지로 훼손 우려 전문가 “수목 제거 등 통한 보존조치 시급히 마련해야”

일본이 원산지인 가이즈카 향나무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석묘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시 용담2동 2623-1번지 일대에 자리한 용담지석묘는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제주용담동 유적과 함께 사적 제52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용담지석묘는 덮개돌 아래에 잘 다듬은 판석 11개를 주위를 돌아가면서 병풍처럼 받치고 있는 지상위 석식으로 가장 전형적인 제주도식 고인돌로 평가된다.

청동기 시대 최말기에서 철기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기원을 전후한 시기 용담동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정치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렇지만 이 지석묘는 바로 옆에 자라는 가이즈카 향나무와 불과 몇 c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상부 덮개돌은 거의 맞닿아 있는 등 자칫 훼손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앞에서도 지석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리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향나무 가지가 길게 뻗는 바람에

흔들릴 경우 덮개돌에 부딪치면서 충격 등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 향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서 하루빨리 수목 제거 등 지석묘 보존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 수목전문가는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지석묘가 너무 위험한 상태”라며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향나무 제거방안 등 보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향나무가 제주 자생종도 아닌 데다 지석묘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데도 그냥 놔둘 만큼 보호가치가 큰 수종이 아니”라며 “주변 향나무에 대한 제거 등을 통해 지석묘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용담동 지석묘 옆에 심어진 향나무가 너무 자라면서 지석묘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수목 제거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실태 파악 후 전문가와 함께 보존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h@ihalla.com



2012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용담2동 지석묘가 옆에서 자라는 가이즈카 향나무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형 기자

혁신도시 내 ‘꿈자람센터’ 2023년 완공

서귀포시, 90억 투입... 올해 건축설계·내년 착공

서귀포시가 혁신도시 내 꿈자람센터 건립을 마무리고, 내년 1월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혁신도시와 관련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꿈자람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서호동 소재에 연면적 2400㎡ 규모에 AR·VR을 이용한 실감영상 직업체

험관, 사이버 놀이동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조성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 및 진로·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꿈자람센터가 건립되면 꿈자람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적 편의 증진과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국비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지역내 활동·소통 어려움 민원 집중

서귀포시 신년 현장행정서 95건 의견 제시돼

서귀포시의 신년 현장행정서 완료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내 활동과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현지민을 시작으로 성산읍까지 17개 읍면동 일선 현장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에 나섰다.

주민들의 제기한 민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활동 및 소통 어려움 해결이 가장 많았다. 이를 포함해 경로당 운영비 사용방법 개선, 도시계획도로 조속 시행,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요청, 노후한 청사 신축 등 95건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

이 제시됐다.

시는 1주일 이내 건의자에게 답변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태업 시장은 일선현장 방문에서 서귀포시 예산 최소 1조원 시대 개막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서귀포in(정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노인돌봄해 경로당 운영비 사용방법 개선, 도시계획도로 조속 시행,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요청, 노후한 청사 신축 등 95건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

백금탁기자

홀로사는 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시, 이달 26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 16만3000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기준은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40만원에서부터 다형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윤형기자

도시재생뉴딜 사업 체계화·관리 강화

서귀포시, 추진계획 토대 9개 과제 목표 제시 예비·인정사업 발굴... 거버넌스도 적극 활용

서귀포시는 사업 체계화와 관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시는 2017년 월평마을(134억51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대정읍(142억원), 2020년 중앙동(199억6300만원) 등 3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 시는 올해 수립한 추진 계획을 토대로 사업 체계화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목표로 제시했다.

9대 과제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발굴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정사업 발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평가 제도 도입 ▷센터 운영지침 마련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 강화 ▷거버넌스 지속 운영 ▷공공건축가 지정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 공유회 개최 ▷서귀포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기반 마련 TF팀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향후 사업 공모를 위해 올해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도 활성화 계획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인정사업과 관련해 공모 선정 시 1곳당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이밖에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도시재생사업인 점을 감안해 도시재생전담조직(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재생팀),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상생협의체, 공공건축가, 협약기관 등 현재 구축된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읍·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여전

제주시, 지난해 1495건 적발... 올해 동지역 조사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8799개소, 4만3187㎡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용도변경 등 모두 149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용도변경이 87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건적치 행위가 409건, 출입구 폐쇄 210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원상복구조치를 완료(1237건) 했거나, 이행 중(245건)에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 상태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

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시는 또 지난해 읍면지역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는 관내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7891개소, 18만3314㎡에 대해서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윤형기자

서귀포문화원

서귀포문화대학 제7기 수강생 모집

1. 목적
서귀포문화원은 시민들에게 향토역사문화 및 인문교양, 문화예술 강좌를 통해 평생교육발전과 문화리더 양성.

2. 모집인원: 40명(입금 선착순 접수)

3. 수 강 료: 연150,000원(입학금 포함)
* 계좌번호 / 351-0766-2261-63, 예금주: 서귀포문화원 (입금 후 연락 필수입니다.)

4. 교육기간: 2021. 3월. ~ 12월.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7시 ~ 9시(2시간)
· 강의주제: 기본소양, 향토역사, 문화의 이해, 생활문화
※ 입학식: 3월 9일(화) 17시.
※ 방 학: 7월 중순 ~ 8월 중순

5. 수강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2. 8.(월) ~ 선착순 40명 (입금 선착순, 평일만 접수)
▶ 접 수 처: 서귀포문화원 사무국(☎733-3789, fax. 732-3789) 서귀포시 이종섭로 33(창작스튜디오 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혹은 홈페이지
▶ 접수서류: 입학원서, 증명사진(1매)
※ 입학원서 다운: 서귀포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seogwipo.org /커뮤니티/공지사항
이메일 sgp3789@hanmail.net
▶ 필 득: 입학원서(증명사진 부착), 수강료 납부서 접수 완료.

* 위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환불관련 내용: 폐강 및 개강 전까지는 전액환불.(개강 후 환불 불가.)

서귀포문화대학장

국민무료 내선공사실무및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취득과정

접수기간: 2021년 01월 05일 ~ 2021년 02월 말까지

교육기간: 2021년 03월 02일 ~ 2021년 08월 26일 (6개월, 125일, 870시간)

교육시간: 09:00 ~ 17:00 (7교시, 점심시간 12:00 ~ 13:00)

교육내용: 전열, 조영, 동력설비, 배선, 배관, 태양광설비, 전기기사 필기·실기, 신재생에너지기사 필기·실기

취득 가능한 자격증: 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전기공사기술자격취득,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필요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 합 격 (총 23명 응시)

“2020 4회 전기기사” 87% 최종합격
양*호, 나*철, 고*빈, 변*구, 이*진, 김*호, 송*원, 김*철, 박*욱, 김*수, 김*진, 김*철, 문*기, 문*국, 정*우, 김*철, 문*인, 임*봉, 현*림, 김*희

(주)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남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품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